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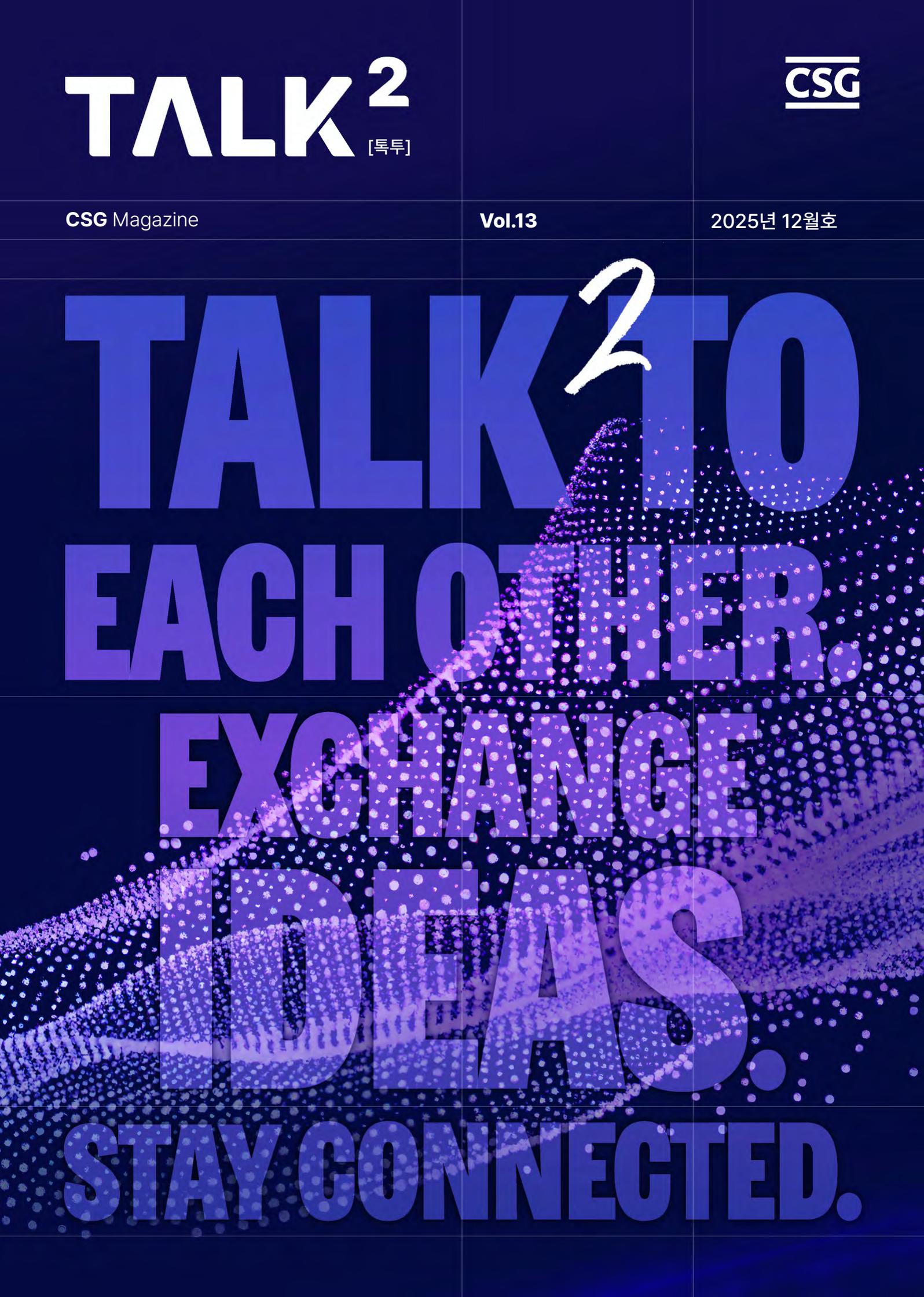
TALK²
[특투]

CSG

CSG Magazine

Vol.13

2025년 12월호



**TALK²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ontents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6

30载同行 骏启新程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특뷰 [TALK² + Interview] 9

기획 창신이 만든 신발, 가능성을 키우다

One in a Million 17

요가로 일상의 균형을 RE:SET 하다

CEO 두줄 노트 20

러닝처럼

Special Page 22

CSG 광고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5

ACG팀

CSG News Pick (#창_뉴_픽) 30

#AI #Offshore

Trend Catcher 34

News Clipping 79호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지난 12월 4일, QD 3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오랜만에 QD를 찾았다. 1995년 11월 첫 생산 라인 가동 이후 벌써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설립 초기, 현지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한다는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노력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QD를 방문하면, 그 당시 함께 성장해온 현지 직원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눈빛 속에서 한 가족 같은 끈끈함이 여전히 전해진다.

30년 동행, 새로운 여정을 향해
30载同行 骏启新程 30재동행 준계신정

30년간 함께 걸어온 QD,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준마(駿馬)처럼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여정을 열어가자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특뷰

특뷰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획 창신이 만든 신발, 가능성을 키우다

창신 x 롯데자이언츠 x 부산시교육청

부산 스포츠 유망주 신발 지원

Maximize Possibility



창신, 부산 스포츠 유망주 100명 미래 밝혔다

롯데 도루 기록 연계... 창신 기술력 담긴 러닝화 100켤레 전달

Maximize
Possibility



롯데자이언츠 전준우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부산 스포츠 유망주들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다.”

남충일 CEO

“창신이 개발한 신발을 신고
부산 스포츠 유망주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제패하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파이팅!”

부산 지역 스포츠 유망주들이 창신의 러닝화를 신고 사직야구장에 섰다. 창신은 지난 8일 롯데자이언츠,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부산 스포츠 유망주 신발 전달식'을 열고 창신이 직접 개발 및 생산한 보메로 플러스 100켤레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민·관·구단'협력 모범사례로 주목

이번 지원은 창신이 지난 5월 '누적 신발 생산 10 억 족 돌파'를 기념해 롯데자이언츠와 체결한 '1도루=1켤레' 사회공헌 활동의 결실로,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 스포츠 꿈나무 육성 정책'과 취지가 맞아있는 민·관·구단 협력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았다.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사회공헌 협약식

지원 대상은 ▲육상(부산체고·부산대 사대부고) ▲야구(수영초) ▲배구(경남여중) 등 3개 종목 4개 학교 학생 100명이다. 특히 올해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높이뛰기 우승을 차지한 김준기(부산체고 3학년)를 비롯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각각 금메달 및 은메달을 획득한 경남여중 배구부와 수영초 야구부 등 잠재력 높은 선수들이 대거 포함돼, 이들이 더 큰 무대에서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메로 플러스로 시작된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특별한 하루

지난 8일 사직야구장은 부산 스포츠 유망주들의 설렘으로 채워졌다. 이날 현장에는 부산체고 김준기, 이주은 학생을 비롯해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선수 8명과 지도교사들이 함께했다. 육상과 야구, 배구 등 종목과 학교는 달랐지만 학생들은 보메로 플러스를 신고 야구장 위를 가볍게 달리며 새 신발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나눴다.

러닝화 한 켤레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러웠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특히 육상 종목 선수들은 “훈련 때 바로 신고 뛸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학생들은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위한 인터뷰에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 했지만, 이내 웃음을 띠고 즐겁게 참여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지하게 풀어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들도 참석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시교육청 김기훈 장학사는 “2026년 부산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이 자리가 부산 스포츠 유망주들이 더 넓은 무대를 향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직야구장에서 보낸 이날 하루는 부산 스포츠 유망주들에게 단순한 행사를 넘어, 꿈과 성장을 응원 받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Athlete



전국체전 “끝이 아닌, 더 큰 무대를 향한 출발”

가능성을 신고, 더 멀리 나아가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육상의 불모지로 불려왔으며, 부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인프라와 관심, 저변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육상은 늘 ‘도전의 종목’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대학경기 400m 계주 금메달 획득 등 신예 선수들의 활약은, 대한민국 육상이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변화의 흐름은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확인됐다. 높이뛰기 금메달 김준기, 해머던지기 은메달 이주는, 10종 경기 동메달 이정수 선수 등 부산 스포츠 유망주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부산 육상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결과였다. 이들에게 전국체전은 끝이 아닌,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

창신은 파트너사 유일의 Track&Field 신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 가능성을 키운다(Inspiring all to maximize their possibility)’는 회사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신은 이들의 여정을 함께하며 부산 스포츠 유망주들이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사대부고 | 10종 경기

이정수

“전국체전에서 메달 따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꿈을 이뤘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대중들에게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

부산체고 | 해머던지기
이주는

“열심히 해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싶다. 모두가 배우고 싶은 선수로 성장하겠다”

부산체고 | 높이뛰기
김준기

“유상혁 선수처럼 즐기면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다.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에서 인정받는 선수로 성장하겠다. 3년만 기다려 달라!!”

백만 명 중 하나

창신인만의 특별한 이야기

ONE *maximize our possibility* IN A MILLION

숨겨진 재능과 독창적인 감각으로 반짝이는 창신인들의 다채로운 삶과 열정을 공유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신인만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조명합니다.

백만 명 중 하나, 내 주변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창신인을 알려주세요!

하단 제보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폼으로 연결됩니다.

"테니스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3연패"

"힙합부터 왁킹까지, 10년차 스트리트 댄서"

"다이빙 자격증만 5개, 프리다이버"

제보하기

EP.06

요가로 일상의 균형을 RE:SET 하다

: 멈추지 않은 1,000일의 수련이 가져온 삶의 변화

Innovation 만나경 TD

하루를 마무리하며, 숨을 고르는 시간.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몸의 움직임에만 몰입한다. Innovation팀 만나경 TD에게 요가는 그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이자,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시작한 요가는 어느새 3년이 되었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루틴이 되었다. 매일 멈추지 않고 이어온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다. 요가는 만나경 TD에게 자신만의 페이스를 지켜내는 연습이자, 일상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기준이 되었다. 느려도 멈추지 않았던 1,000일. 그 수련이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멈추지 않는 수련이 길러준 내면의 힘

“몸과 마음이 변화할수록, 요가가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확신도 더욱 단단해진다.”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 대신, 고요함을 만나다

3년 전만 해도, 스스로를 '생각나무'라 부를 만큼 불필요한 걱정이나 고민이 많았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 보려 명상에도 도전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 오히려 또 다른 잡생각을 불러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요가를 소개하는 영상을 접했고, 그 길로 바로 집 앞 요가원에 등록했다.

당연하지만 첫 수업은 쉽지 않았다. 동작을 따라가기에도 벅찼고, 자세를 유지하는 '홀딩' 동작에서는 근육이 한계를 드러내며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만큼은 몸의 움직임에 온전히 집중할 덕분에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생각들이 조용해졌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은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개운한 감각을 계기로 요가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었고, 하루하루 수련을 이어오다 보니 어느새 1,0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월화수목금토, 매트 위에 오르는 이유

일주일에 여섯 번, 거의 매일 요가를 한다. 유독 지치고 힘든 날도 수련을 거르지 않는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역시 하루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날의 상태에 맞춰 천천히 움직인다. 요가는 기록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운동이다. 타인과의 비교나 속도의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의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 그 점이 오늘도 나를 매트 위로 향하게 만든다.

멈추지 않으면 변화는 찾아온다

최근에 '바카사나(학 자세)'를 연습하던 순간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팔꿈치 위에 올린 채 두 발을 공중에 띄우는 고난도의 자세다. 여러 차례 실패를 반복하며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 팔뚝에는 멍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이 균형을 찾으며 자세가 완성됐다.

요가는 이렇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동작이라도 끊임 없이 도전하다 보면 결국 해 내는 나 자신을 만나게 한다. 그 경험이 쌓이며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실패조차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느려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게 요가는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수련 후 팔과 무릎에 멍이 잔뜩, 나에게 '영광의 상처'를 안겨준 동작



시르사사나(머리서기)



바카사나(학 자세)



명칭	특징	개선	강도
하타	하나의 동작을 느린 속도로 반복	신체 밸런스	★
빈야사	호흡과 동작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방식	유연성+근력	★★
아쉬탕가	여러 동작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역동적으로 반복	체력+집중력	★★★

나경's 최애 요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다

요가는 몸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만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더 또렷하게 느끼게 해준다.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는 몸의 정렬이었다. 예전에는 라운드 숄더가 심했는데, 요가를 꾸준히 하며 자세가 조금씩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상태였다.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몸이 균형을 찾을수록 마음도 함께 정돈되었고, 그 변화가 반복될수록 요가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확신 역시 점점 단단해졌다.



요가 원데이클래스



첫 요가 여행 In 발리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요가원

발리에서의 요가, 시야가 확장되다

요가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나자, 다른 나라의 요가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같은 요가라도 공간과 문화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올 것 같았다. 그래서 올해 여름 휴가는 발리로 떠났다. 울창한 야자수로 둘러싸인 발리의 요가원은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덥고 습한 기후 특성상 요가원 사방이 개방되어 있었고, 수련 내내 바람과 햇빛,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실내에서 매트 위에 집중하던 한국에서의 수련과 달리, 자연 한가운데서 몸을 움직이는 느낌이 새로웠다. 마치 정글 속에서 수련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업 방식도 인상적이었다. 익숙하게 해오던 요가보다 훨씬 역동적이었고, 특히 근력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동작들이 많았다. 쉽지 않았지만,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요가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발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요가는 정해진 틀 안의 운동이 아닌,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는 수련이라는 걸 체감했다. 다음 목적지는 웰니스 문화가 발달해 요가 커뮤니티가 활발하다고 알려진 호주로 정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나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러닝처럼

지난 10월 20일부터 4일간 미국 오리건주 비버튼에서 열린 '**2025 Partner Summit**'은 고객사의 전략적 대전환과 함께 핵심 파트너인 **창신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보메로 프리미엄을 신고 등장한 엘리엇 힐(Elliott Hill) 최고경영자는 과거 성장과 스포츠에 대한 초점을 잃었던 시기를 끝내고, '**스포츠와 운동선수 중심**'의 문화와 혁신 가속화를 통해 시장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파트너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보메로 플러스와 보메로 프리미엄 등** 혁신적인 제품들의 성공적 출시가 **러닝 부문의 극적인 성과를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제품은 단순한 신제품을 넘어, 200여 가지 이상의 컬러로 생산되는 전례 없는 시도를 통해 러닝화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단기간에 이러한 획기적인 제품 개발과 생산을 완수한 것은 **창신인들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탁월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고객사가 스포츠 주도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전략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추진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창신, 데이터를 신고 신대륙을 열다

창신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발 제조의 신대륙을 개척해 나아갑니다

데이터를 통해
신발 제조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고,

디지털 혁신으로
신발 제조의 새로운 시장을 선도합니다.

창신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신발 제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Special Event 참여하기
창신 광고를 찾아라! 인증샷 이벤트

 changshin_official

STANDARDIZATION - S/4HANA - AI -
AUTOMATION - CSBP - D2B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타사가 아닌, 비와 바람 같은 자연”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ACG(All Conditions Gear)팀. 이들이 신발 개발의 기준으로 삼는 환경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해발 2,600m를 오르내리는 고산 지형, 진흙과 모래, 날카로운 바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비와 바람까지. ACG팀의 출발은 언제나 ‘STRONG IN ALL CONDITIONS’이다. 창신에서 처음 접하는 소재와 기술을 과감히 적용하며 변화하는 조건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준으로 삼는 ACG. 이들이 이기고자 하는 대상은 경쟁사가 아니다. 비와 바람, 부리와 바윗길 같은 자연의 변수들이다. 어제보다 더 거친 환경을 이겨낸 성능으로 기준을 다시 만들어 가는 팀, ACG를 만났다.

극한을 넘어서는 힘, '이유(Why)'를 묻는 소통에서 시작

“무엇이 아닌,
왜 바뀌는지를 볼 때, 최적의 답이 보인다”

All Conditions Gear!
“모든 조건에서 기능하는 러닝화를 개발하다!”



ACG팀 노상민님 인터뷰

러닝·트레이닝·키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넘나들며 내공을 쌓아온 9년 차 베테랑, 노상민 TD. 현상을 넘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집요함을 가진 그는, ACG라는 낯선 필드에서도 당황하는 법이 없다. 수시로 변하는 개발 조건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적의 길'을 찾는 그를 만나 ACG팀의 현재와 미래를 들었다.

Q ACG팀 소개 좀 해달라

ACG. 이름 그대로다. 모든 조건(All Conditions)에서 제 기능을 하는(Gear) 신발을 만든다. 트레일 러닝 전문화를 개발하는데, 일반 마라톤과는 또 다르다.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 있는 프랑스 샤모니를 출발해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가로지르는 국제 대회, UTMB(Ultra Trail du Mont Blanc)가 대표적이다. 선수들은 약 171km의 산악 코스를 2~3일간 밤낮없이 달리며 변덕스러운 기상과 험난한 지형을 견뎌야 한다. 바텀의 내구성과 갑피의 방수 능력 등 핵심 기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러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달릴 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Q ACG팀이 창신에 신설된 배경

기술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을 대중화한 능력 덕분이다. 최근 고객사 내에서 트레일 러닝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기존 러닝화 기술을 넘어선 고난도 기준을 구현할 파트너가 절실했다. 창신은 그동안 Track&Field 등 전문 러닝화 분야에서 꾸준히 역량을 증명해 왔기에, 자연스럽게 ACG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됐다. 고객사의 니즈와 창신의 준비된 기술력이 만난 결과다.

Q 9년 차 개발자로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What)'이 바뀌는지보다 '왜(Why)' 바뀌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개발 도중 어떤 것이든 변경 요청이 올 때, 그 배경을 이해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작은 변경 요청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뒤로, 적극적으로 그 의도를 묻고 소통하려 한다.

실제로 이번 개발 중 핵심 자재인 아웃솔 교체 요청이 들어왔을 때가 위기였다. 개발 일정은 그대로인데 자재를 바꾸라니, 엘리트 선수들의 착화감 점검부터 품질 검증까지 모든 걸 다시 해야 하는 난관이었다. 내부에서는 기존 자재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객사의 의도를 파악해 보니 답은 명확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검증된 브랜드의 아웃솔 사용'이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분명했던 것이다. 이유를 알게 되니 망설임 없이 신규 자재 변경으로 방향을 변경했고, 테스트 일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기한 내 완주할 수 있었다.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소통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현장에서 선수들과 호흡하는 밀도 있는 개발자로 성장할 것”

Q 앞으로의 목표

책상 앞이 아닌,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 트레일 러닝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대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선수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듣고, 그것을 제품에 녹여내는 '밀도 있는 디벨로퍼'가 되는 것이 목표다. 또한 ACG팀의 초기 멤버로서 담당 모델뿐 아니라 팀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피며, 새로운 자재와 기술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팀이 창신의 핵심 조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ACG팀의 첫번째 트레일 러닝화 울트라플라이

“내 삶의 가장 치열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신발”



창신 최장 기록 4,828km
극한의 테스트로
성능의 기준을 세우다

서울-부산 왕복 7번!!



ACG팀 김슬아님 인터뷰

ACG팀 신설과 함께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김슬아 TD. 그는 ACG의 첫 번째 모델인 'Ultrafly(이하 울트라플라이)'를 끝까지 이끌었다. 신규 자재 도입부터 창신 역사상 최장 거리 테스트까지. 맨땅에 헤딩하듯 프로세스를 개척하며, ACG의 기준을 완성해 낸 그의 치열했던 개발기를 들었다.

Q 울트라플라이는 어떤 신발인가

ACG팀 신설 이후 처음 선보이는 트레일 러닝화이자, 향후 우리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이다.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테스트 거리다. 고객사와 창신 개발 역사상 단일 모델 기준 최장 거리인 약 3만 마일(약 4,828km)의 러닝 테스트를 거쳤다. 서울과 부산을 7번 이상 왕복해야 하는 거리다. 지난 6월, 세계적 권위의 WSER(Western States Endurance Run) 대회에서 이 신발을 신은 선수가 우승하며 이미 성능은 입증됐다. 내년 봄 공식 출시를 앞둔, ACG팀의 첫 번째 완성형 결과물이다. 기대해 달라.

Q WSER로 첫 출장을 갔다고

WSER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트레일 러닝 대회다. 100마일(약 161km)을 달리는 레이스인데, 현장의 환경 변화가 극심했다. 같은 코스 안에서도 고도 차이 때문에 반팔과 패딩을 번갈아 입어야 할 정도였다. 현장 출장은 처음이었는데 트레일 러닝화가 어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지, 왜 우리가 'All Conditions'를 지향해야 하는지 몸소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WSER, 내가 개발한 신발이 견뎌야 할
‘진짜 극한’을 마주하다”

Q 현장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했다고

문서로만 보던 피드백과 숫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문서상의 숫자가 현장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 출장 전에는 단순히 데이터로만 존재했던 피드백들이, 이후에는 선수들이 벗어난 신발의 놀린 미드솔, 마모된 아웃솔 상태로 생생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며 미팅과 피드백을 정리하는 강행군이었지만, 현장에서 선수들의 미세한 불편함까지 직접 체크했던 시간은 개발의 디테일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Q 개발 기간 중 힘들었던 점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과정, 그 막막함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공정이 복잡하고 하이테크가 적용된 모델이라 개발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트레일 러닝의 핵심인 '비브람(Vibram)' 아웃솔을 도입하는 과정이 가장 큰 산이었다. 창신이 비브람 본사와 정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몰드 도면 설계부터 비용 산출 같은 개발의 기본 요소는 물론, 송금 및 운송 절차 등 세부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하나하나 새롭게 구축해야 했다. 엔지니어팀, BU팀, Costing팀, 무역팀 등 여러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며 길을 닦아 나갔다. 일반 모델보다 두 배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덕분에 안정화된 프로세스를 이제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Q 하고 싶은 말

울트라플라이는 내게 단순한 신발이 아니다. 개발 과정이 임신 기간과 맞물려 있어, 농담처럼 “울트라플라이와 뱃속의 아이가 함께 자랐다”고 말하곤 한다. 그만큼 내 시간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 육아휴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그동안 큰 힘이 되어준 프로젝트팀과 ACG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건강하게 복귀할 때까지, ACG팀이 더 멋지게 성장해 있기를 응원하겠다. 파이팅!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AI

제7회 AI Demo Day 개최

창신의 AI 프로젝트들이 아이디어 단계를 지나, 실행과 현업 적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제7회 AI Demo Day에서는 현재 창신에서 진행 중인 AI 프로젝트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현업 적용을 위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는 본사 Digital Lean팀, MI팀, IPA팀, GP팀을 비롯해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실과 BYTESIZE가 참여했으며, 각 조직에서 추진 중인 AI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실무 적용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9개의 AI 프로젝트가 소개됐으며, 그중에서도 실제 업무로 바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았다. Digital Lean팀은 제조 라인에 AI 알고리즘 기반 비전 머신을 적용해 실시간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AI Vision QA 추진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기존의 육안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품질을 판단함으로써 제품 품질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됐다.



MI팀은 설비에 부착된 IoT 센서를 통해 진동, 온도, 소음, 전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설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제조 설비 이상 감지 및 고장 예측'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IPA팀의 AI Agent도 큰 관심을 받았다. 창신의 AI 챗봇, QRC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연차 기안 작성 등 실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능을 시연하며, 향후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행사 준비를 맡은 GP팀 황수정 팀장은 "이번 AI Demo Day는 창신의 AI 기술이 검증 단계를 넘어, 현업 적용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각 조직의 프로젝트 성과를 한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AI Demo Day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48개의 프로젝트가 공유되며 창신의 AI 기반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참가자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QRC AI Agent' 발표를 진행하는 IPA팀 최병두



#Offshore

30년 동행

더욱 힘차게 새로운 길을 열다

지난 12월 4일, QD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중국 칭다오 교주시에 위치한 메리어트 호텔(Qingdao Marriott Hotel Jiaozhou) 연회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중국 전통 북 공연팀의 신명 나는 축하 공연과 QD 30주년 특별 영상 상영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정환일 회장님, 남충일 CEO, 나이키 코리아 GM/PM 마이클 베일리스(Michael Bayless), 류창수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 구룡희(刘希曦) 판사처 당서기, 홍상규 QD GM이 차례로 축하사를 전하며, 3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정환일 회장님은 "1995년 작은 시작으로 출발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신념과 끈기로 성장해 오늘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30년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남충일 CEO는 과거 QD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QD는 창신의 최첨단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T&F 모델을 통해 차원이 다른 품질과 신뢰를 쌓아왔다"며, "더 큰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혁신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자"고 강조했다. 홍상규 QD GM은 지난 30년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QD 현장을 지켜온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95-2025

3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이벤트는 중국에서 재물신으로 불리는 관우의 청룡언월도를 형상화한 대형 모형 칼로 케이크를 자르며, 참석자들의 웃음과 뜨거운 축하 박수를 자아냈다. 이어서 QD 30년 근속 직원에 대한 시상식과 품질 모럴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1, 2, 3위 팀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만찬 시간에는 임직원 및 직원 자녀들이 준비한 쿵후, 서플댄스, 고쟁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이로써 이번 행사는 QD 30년을 함께 만들어온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QD의 지난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

정환일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무대 배경에 적힌 문구 '30载同行 骏启新程(30재동행 준계신정)'의 의미를 "30년을 함께 걸었고, 이제 더욱 힘차게 새로운 여정을 열어가자"라고 설명하며, 30주년 축하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행사장 입구는 끝없이 펼쳐지는 육상 트랙을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세계 신기록을 이끈 T&F 모델들과 QD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히스토리 월과 30주년 기념 포토 월이 장식되어, 행사에 더욱 깊은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마치고 정환일 회장님과 남충일 CEO는 행사에 참석한 QD 현지 직원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포옹하고 악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직원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축하한 QD 30주년 행사는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앞으로 QD가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30년'의 열정적인 스토리가 더욱 기대된다.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9]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November 2025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NIKE

NIKE KOREA, 체이스 테일러(Chase Taylor) 신임 대표 선임

- 15년간 NIKE의 디지털 커머스 및 글로벌 브랜드 전략 분야를 이끌어온 체이스 테일러(Chase Taylor)를 신임 대표로 선임
- NIKE 디지털 마케팅 코디네이터로 시작해 북미 마켓 플레이스 선임 이사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총괄(GM)을 역임한 핵심 인물
- 앞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경험 확장과 스포츠 중심의 성장 전략에 집중할 계획

문화일보

NIKE, 로봇 기술 적용한 전동 신발 'Project Amplify' 공개

- 러닝화에 경량 로봇 시스템을 적용한 전동 신발 'Project Amplify(프로젝트 앰플리파이)' 공개
- 충전식 배터리·모터·구동 벨트로 구성된 전동 모듈을 탑재해, 다리와 발목 움직임을 증폭시키며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특징
- 로봇공학 스타트업 Dephy와 협업해 개발 중, 현재 초기 테스트 단계로, 향후 일반 소비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Project Amplify

한겨레

경쟁사 / 산업

ADIDAS,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

- 올해 3분기 매출 66억 3,000만 유로를 기록,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달성
- 러닝을 비롯해 트레이닝·풋볼 등 핵심 퍼포먼스 라인이 전체 성장을 견인,라이프스타일 라인도 글로벌 수요 확대
- 한국과 일본에서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아시아권 소비 회복과 러닝 트렌드 확산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

한국섬유신문

PUMA, 실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 올해 3분기 6,230만 유로 순손실을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적자
-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전년 대비 재고 19% 증가가 실적 악화의 원인
- 내년 말까지 사무직 인력 약 900명(전체의 8분의 1) 규모의 구조조정 예고
- CEO 아서 회엘트(Arthur Hoeld) "2027년부터 성장세 회복이 목표"이며 "스포츠웨어 중심으로 브랜드를 재편하고 '하이록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

*하이록스: 러닝과 근력 운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피트니스 스포츠

ZDNet Korea

SALOMON, 올해 매출 2천억 원 돌파 예상... "2.5배 성장"

-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9월 기준 매출액 1,200억 원 기록. 전년 대비 2.5배 성장
- 러닝 라인의 강세와 더불어 일상 착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스타일'이 폭넓은 고객층에서 인기
- 신발과 함께 의류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해 기능성과 스타일을 갖춘 토털 브랜드로 입지 강화 예정

어패럴뉴스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